

미국 노인보호주택 거주자들의 ‘집’으로서의 속성에 관한 사례 연구

Residents' Awareness of Assisted Living Facility(ALF) as a 'Home': Cases of Virginia, U.S.A.

중앙대학교 주거학과

조교수 김 영 주*

Dept. of Housing Studies, Chung-A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Kim, Young-J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housing attributes that make residents feel 'at home' in ALFs in Southwest Virginia. For this purpose, residents' needs, experiences, and opinions of the physical environment, the social environment, and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s such as policies and programs of ALFs were identified. As a multi-case study, five ALFs in Southwest Virginia were studied using constant comparative methods of data analysis. In addition to face-to-face interviews with 25 residents and 5 administrators of five ALFs, observations were conducted with personal journal. Each facility was designed to be a single-family house or multi-family dwelling in outside appearance.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satisfied with their current dwelling as a 'home' in terms of homelike attributes such as 'autonomy/privacy,' 'personalization,' 'safety and security,' 'services and care,' 'independence,' 'social interaction/friendship,' 'family support,' and 'rules and regulations.' In spite of high satisfaction with the facility, however, many people did not think of their current dwelling as a real 'home.' A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living in their own homes and living in the ALF, people pointed out a lack of independence and social interaction. Residents of ALFs may have reordered their priorities in their current life situation so that safety, security, and care were more important to them than feeling "at home."

▲주요어(Key Words) : 노인보호주택(assisted living facility), 집과 같은(homelike), 주거속성(housing attributes), 자율성과 프라이버시(autonomy and privacy), 안전과 안정성(safety and security), 사회적 관계(social interaction), 독립성(independence)

1. 서 론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85-90%)을 집에서 보내는 노인에게 있어서 집이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집은 생리적, 사회적, 심리적으로도 노인들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인들의 복지는 그들이 사는 공간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Butler, Oldman, & Greve, 1983).

흔히 동일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노인들은 매우 다양한 집단이다. 노인들의 개인적 특성은 특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노인들이 이전의 인생 경험을 통해 다양한 생활방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성별 등 여러 요인별로 더욱 세분화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Neugarten, 1996). 이러한 노인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할 때 노인을 위한 주거 역시 개개인의 취향과 선호, 욕구, 수입이나 연령, 건강상태, 성격,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계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는 욕구(aging in place)를 갖고 있다. 그

* 주 저 자 : 김영주 (E-mail : youngkim79@hotmail.com)

러나 이러한 보편적 바램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은 어쩔 수 없는 건강의 악화나 가족 구성원의 해체, 손실 등으로 인해 정든 자기 집을 떠나 노인전용주거시설로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2000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8명 중 1명 꼴로 노인인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US Census Bureau, 2000). 미국의 경우, 이러한 노인인구를 위한 노인전용주거시설이 상당히 세분화·보편화되어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충실하게 계획되어져 있다.

이제까지 많은 연구자와 디자이너들이 장기보호 시설주거에 거주하는 노인 거주자들에게 '내 집'과 같은 환경요소를 제공하는데 주력해 왔다(Regnier, 1994; Frank, 1999; Brent, 1999). 주택과 같은 속성들을 시설주거에 제공함으로써 거주자들은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마치 자신의 집에 있는 것 같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노인보호주택(Assisted Living Facility: ALF)은 이와 같은 취지와 맥락에서 개발된 노인전용 보호시설주거형태로서, 노인거주자들이 자신의 '집'이라 부를 수 있을만한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노인보호주택의 가장 주된 특성이란 집과 같이 편안한 물리적 환경디자인을 꼽을 수 있다. 미국에선 1980년대 초중반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노인보호주택은 일상생활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에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어 혼자서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들을 수용한다.

미국보호주택센터(1998)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는 약 29,000개 소 정도의 노인보호주택이 있으며 약 천오십만명 정도의 노인이 이러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노인보호주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 연구자들은 집과 같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생겨난 노인보호주택에서 대다수의 거주자들이 사실상 내 집과 같은 느낌을 갖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다(Brent, 1999; Frank, 1999). 이는 노인들의 다양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설들이 거주자 혹은 지역적 특성을 배제한 채 실증적 연구없이 단순히 직관적으로 개발되어 왔기 때문이다.

만일 노인보호주택 거주자들이 자신의 거주환경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종합적 시각을 제공한다면 노인보호주택 거주자와 디자이너 및 시설주 간의 갈등과 혼란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인보호주택 거주자들이 자신의 거주지를 '집'으로서 유용하다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노인보호주택을 '집'처럼 인식하게 하는 속성들이 무엇인지 파악한다면 이러한 정보는 차후 정책입안자, 디자이너, 시설 공급주체, 관리직원 및 교육가 등 다방면에서 널리 반영,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노인보호주택의 '집'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거주자 인식을 통해 향후 물리적, 사회적 환경 측면에서의 거주자 만족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 및 관리 방안까지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사회적

화적, 관리적인 환경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을 통해 거주자를 위한 '적합성' 연구가 요구된다.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조건의 노인보호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현 거주지(노인보호주택)에 대한 주거의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제기되었다.

- 1) 노인보호주택 거주자들은 '집'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 2) 노인보호주택 거주자들이 현 거주지를 '내 집처럼'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속성은 무엇인가?

2. 연구의 개념틀

노인을 위한 주거는 프라이버시, 존엄성, 선택권, 독립성, 개인성 및 안정되고 푸근한 느낌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Regnier, 1994).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한 노인들을 위한 반독립적 주거형태인 노인보호주택은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빠른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주거형태이다¹⁾. 이는 물리적, 공간적 측면에서 내 집과 같이 안락한 속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마치 집에서 사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연결망에 있어서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 물리적 수명, 서비스, 위치조건, 관리 직원들의 태도, 규율, 비용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관련된다.

노인보호주택은 기존의 노인전용 시설주거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내 집과 같은 물리적 환경에서 가족과의 지속적인 유대 속에 거주자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정들어 살던 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과 모르는 사람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다른 노인들과 함께 어울려 삶으로써 심신의 기능이 오히려 저하될 수도 있으며 높은 비용부담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도 포함하고 있다(Golant, 1999). 이러한 찬반양론 속에서 노인보호주택에 대한 다각적이며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주거환경(노인보호주택)에 대한 거주자의 인식(집)이 개인적 요소,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및 관리적 환경에 의해 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Integrative Model of Place: IMP)적 틀 안에서 진행되었다(Calkins & Weisman, 1999).

1) 노인생활지원주택(ALF)은 미국내 노인시설주거 유형 중 매년 15-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1998년에는 신축노인시설주거유형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출처: Trends and Data: Aging Housing and Services Field. American Association of Homes and Services for the Aging, 1999).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장사례연구로서 궁극적인 연구의 분석단위는 거주자들의 '집'으로서의 인식이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5개 노인보호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각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별로 비교분석(cross-cas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심층면접과 관찰기법, 기록자료 수집 및 개인기록 등을 이용하였다.

1. 장소선정

미국 버지니아주는 전체적으로 온화한 기후조건과 안전한 환경, 저렴한 생활비와 훌륭한 자연경관 등으로 인해 많은 은퇴노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하나이다. 사례조사 지역선정을 위해 25개 버지니아 노인지역지부(Virginia's Area Agencies on Aging in Virginia) 중에서 도심과 교외의 성격을 끌고루 담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근거하여 의도적으로 3개 지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3개 지부에 대해서는 각 지부별 담당 책임자에게 그 지역에 소재한 노인보호주택 목록을 부탁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각 시설별 규모, 위치, 시설운영단체(영리/비영리), 건물 유형 및 건축연한 등에 근거하여 각기 조건이 상이한 노인보호주택 5군데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미국 버지니아 남서부에 위치한 5개 노인보호주택 중 침실 한 개를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로 제한하였으며 신뢰성 있는 자료수집을 위해 인지장애가 있는 치매 노인 및 알츠하이머 환자는 제외하였다. 보조적 자료수집을 위한 면접조사는 시설관리직원 중 거주자와 가장 사회적 교류가 많은 관리책임자(administrator)를 대상으로 제한하였으며 총 수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조사대상자 선정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5군데 노인보호주택을 방문하여 관리책임자를 만난 후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실험허가를 받았다.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각 시설주거별로 관리책임자에게 최소한 3개월 이상 현재의 시설주거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지적 장애가 없는 독실거주자를 5명씩 선정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25명의 거주자를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을 위해 면접, 관찰, 기록자료(시설 안내책자 등)분석, 연구자 개인기록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였다. 거주자와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면접용 질문지를 개발, 사용하였다. 1인당 면접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였으며 면접내용은 거주자의 일반사항, 주택의 의미, 과거 주거경험, 현 주거시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느낌, 거주자들간의 사회적 관계, 독립성, 자율성, 프라이버시, 직원들의 태도, 서비스, 규율 및 시설에 대한 요구 등이었다. 거주자와의 면접 외에 시설관리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한 추가정보를 얻기 위해 각 시설별로 관리책임자를 만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면접내용은 테이프로 녹음되었으며 이후 그 내용은 결과 분석을 위해 전사되었다. 인터뷰 도중 연구자의 느낌과 인상에 관한 개인적 기록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간접자료수집 방법으로 관찰기법을 병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설관찰용지, 현장기록(field note), 개인기록, 스케치와 사진촬영 등이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관찰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노인보호주택의 물리적 환경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집과 같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며, 둘째는 식당을 제외한 공용공간(로비, 라운지)에서 일어나는 거주자들의 공간 사용행태 및 사회적 상호작용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고 셋째는 개인실의 공간사용행태 및 개인화 유형을 보고자 한 것이었다.

질적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면접, 관찰, 기존자료분석, 개인적 기록 등 여러 종류의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다중자료수집기법(Triangulation)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높였다.

III.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 및 시설의 일반사항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64세부터 95세였으며 평균연령은 82세였다. 25명의 거주자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백인이었으며 이중 19명이 여성이었다. 응답자 대부분은 사별하였으며 많은 경우 현 거주자와 가까이 자녀가 살고 있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Medicare나 Medicaid) 없이도 월 \$2,000 이상의 임대료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응답자들은 평균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노인보호주택으로의 주된 입주동기는 건강악화와 사회적 지원의 결핍(배우자 사망 등)을 꼽았다. 노인보호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최단기 3개월부터 최장 8년까지 분포하였다.

선정된 5개 노인보호주택의 조건은 <표 1>과 같이 비교, 요약될 수 있다.

<표 1> 선정된 5개 노인보호주택별 일반사항

시설명	거주자	건물연한	운영단체
Maple House	34	50년 이상	영리
Pine Ridge	90	3년	영리
Locust Lane	90	2년	영리
Ash Meadow	84	7년	비영리
Walnut Hill	191	20년 이상	비영리

시설명	층수	월임대료	방크기 (ft ²)
Maple House	1층	\$1560-2005	150
Pine Ridge	2층	\$2295-2950	275-435
Locust Lane	3층	\$1980-3050	300-450
Ash Meadow	1층	\$2087-2610	400
Walnut Hill	1층	\$1272-1993	350

2. 노인보호주택의 주거특성

1) 물리적 환경

전체적으로 5개 노인보호주택은 주거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노인보호주택의 기본철학을 반영하여 '집'과 같은 특성을 보여주었다. 각 시설주거는 지붕, 현관, 건축자재, 문과 창호 디자인 등 외관으로 볼 때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 단독주택이나 복합주택(저층아파트)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림 1> 단독주택과 같은 노인보호주택 외관

그러나 건물연한이 오래 될수록 내 집과 같은 디자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적게 나타나는 대신 시설과 같은 느낌이 많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거주자들의 현재의 시설이 집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느끼고 있었으나 관찰 결과 실질적으로 거주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개인실과 식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동공간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대신에 거주자들은 개인물품과 가구 등을 이용한 다양한 개인화를 통해 독특한 자신만의 공간으로 만들고 인식하고자 하였다.



<그림 2> 개인실의 개인화

2) 사회적 환경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시설내 다른 거주자들과 활발한 사회 교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한 교류는 식사 시간에 일어났으나 그 이외의 대부분의 시간은 각자 자신의 방에서 보내고 있었다. 모든 거주자들이 관리직원과의 사회적 교류는 상당히 원만하고 만족스럽다고 함으로써 관리직원들의 태도가 이들의 심리적 안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녀가 가까이 있거나 자주 방문하는 경우 거주자들의 심리적 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현재의 거주지를 자신의 '집'으로 인식하고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관리적 환경

관리적 환경이란 시설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규칙 혹은 관리 규약, 서비스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시설이 정해놓은 이러한 규범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거주자들이 금연규칙과 목욕시간 제한, 기억력 감퇴에 따른 물품 도난방지를 위해 다른 거주자들의 개인실 방문을 규제한다거나 확실히 정해진 식사시간 등에 거부감을 보였으나 대부분은 자신의 거주지가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체가 사용하는 공간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제하고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5개 노인보호주택 모두 거주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었으나 실제 참여율은 상당히 저조하였다. 많은 거주자들이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거나 마음에 맞는 친구를 찾기 어려워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노인보호주택 거주자의 주거의식

1) 노인보호주택 거주자들의 '집 (home)'의 의미

'집'이라는 개념은 다차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집'에 대한 요구는 인간 본성에 내재한 기본적인 것으로 인식되는데 곧 '집'이란 자아정체감, 안전감, 소속감을 내포하는 것으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질서와 통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Rowles, 1987). '집'이라는 현상은 인간이 거주하는 장소와 사람간의 가시적인 관계를 구성한다. 헤이워드(Hayward, 1975)는 "물리적 구조

체, "영역," "장소의 중심," "자아와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화적 유니트"로서의 '집'에 대한 보편적인 차원들을 규명했다. 이러한 분석은 감정적인 성질과 인간관계가 물리적 차원만큼이나 중요함을 제시한다.

노인보호주택 거주자들이 생각하는 '집'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앞서 '우선 거주자들이 생각하는 '집'의 의미를 알아보았다. 조사 대상자들에게 "당신에게 집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응답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다:

"사랑, 행복, 정직(정의), 성실함이죠." (79세 여성, Walnut Hill).

"집이란 사랑이죠. 그건 교제를 의미합니다...집이란 즐거움, 나눔, 서로 돕는 거죠.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70세 여성, Walnut Hill)

"안정을 말하죠. 내 욕구가 충족되는 것." (75세 여성, Pine Ridge)

"내가 자식과 가족에게 의존한다는 느낌이 없는 것이죠. 그건 안전감이죠." (77세 여성, Locust Lane)

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노인보호주택 거주자들에게 '집'이란 개념은 단순히 주택이나 건물같은 물리적 실체라기보다는 경험적인 현상에 관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프랭크(Frank, 1999)는 '집'이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만드는 은신처 이상의 심리적이며 은유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집'이란 거주자의 단기적인 안정을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의 일과와 개인적 기억, 일련의 의식들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장소에 대한 애착심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중심이 되며 결과적으로 '집'이란 거주자가 세상에 적응해가는 과정 속의 점진적인 결과물인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집'이란 것이 그 본질에 있어서 주택이 갖는 물리적 속성과 아이덴티티, 기억(추억), 습관, 문화적으로 조절된 반응과 가치 등을 내포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이는 앞으로 노인을 위한 주거를 계획함에 있어 이들이 심리적 주거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화적 가치와 생활까지를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 노인보호주택의 '집'으로서의 속성

노인보호주택의 기본철학은 공동생활환경에 거주하지만 내집에 살고 싶어하는 노인거주자의 이상을 결합시켜 '집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집과 같은' 환경이란 편안하고 안락하며 따뜻하고 친근한 집을 의미할 수 있다. 동시에, '집과 같은'이란 말은 노인보호주택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용어이기도 하다. 즉 이는 집과 유사한 속성

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사는 거주자와의 연계성의 부재, 개인적 역사의 부재, 적극적인 역할의 부재와 같은 수많은 이유로 인해 진정한 의미의 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Schwarz, 1999).

실제로 노인보호주택의 건물과 실내디자인은 노인거주자들을 위해 보다 더 집과 같은 거주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해 옴으로써 다른 노인주거시설에 비해 시설적인 느낌이 훨씬 적다. 노인보호주택에 관한 연구와 디자인의 주된 이슈가 보다 더 편안한 '집과 같은' 환경을 상징하는 전이가능한 속성들을 찾는 것에 두어져 온 결과였다. 너싱홈(nursing home)과 같은 전통적 시설과는 달리 '집과 같은' 환경은 거주자의 독립성을 높이며 지속적인 치유와 성장을 자극할 수도 있다. 시설주거를 공급하는 업자들 역시 마케팅 목적으로 보다 '집과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게끔 기존의 환경을 변화시킬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실제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Brent, 1999) 과연 무엇이 '집과 같은' 환경을 구성하는 속성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일치된 의견이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많은 응답자들은 자신의 현 거주지를 자신의 '집'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들에게 "당신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10명의 거주자가 "바로 여기" 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동일한 질문에 대해 자신들의 이전 주택을 언급했다. 즉 응답자들은 현 거주지를 자신의 진정한 '집'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대안주거 혹은 임시적인 '집과 같은'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면접조사 결과 노인보호주택에 대한 응답자들의 '집'으로서의 인식은 안전과 안정성, 서비스와 케어, 자율성/프라이버시, 독립성, 사회적 관계/친구관계, 가족의 지원, 일상생활의 규칙성, 개인적 소장물품, 규칙과 규제 등과 같은 범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자율성/프라이버시

본 연구의 모든 응답자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현 거주지에서 매우 잘 존중되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응답자들은 식사시간, 매뉴선택, 활동프로그램, 개인적 스케줄 관리 등 일상생활면에서 충분한 자유와 선택권을 갖는다고 했다. 이러한 선택권은 거주자들로 하여금 현 거주지를 집처럼 인식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내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건 나에게 중요하거든요...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해요." (84세 여성, Walnut Hill)

"자유가 좋아요. 이곳엔 자유가 있지요. (그래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곳에 있는 다른 직원들을 싫어해선 안되지요." (70세 여성, Walnut Hill)

“외출하고 싶으면 언제든 나가죠. 아래층에 내려가서 직원들과 농담을 하곤 합니다. 이곳이 선택권이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81세 남성, Locust Lane)

“내가 더 이상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 집을 선택한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즐겁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일 때, 그것을 최상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해요.” (94세 여성, Ash Meadow)

“아침에 특별히 일어나야 하는 시간도, 저녁때 잠 자리에 들어가야만 하는 시간도 따로 없어요. 깨어있을 수도 있고 책을 읽거나 TV를 볼 수도 있죠. 직원들이 어딘가 가고 싶은 곳에 데려다 주고 또 사람들이 나를 방문하기도 하죠. 식사 후에는 방으로 그냥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고 싶은 활동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도 있고...” (70세 여성, Walnut Hill)

한편 일부 응답자들은 위와 달리 자신의 이전 집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아진 자유에 관해 부정적인 관점을 피력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변화가 너무 많지요. 여기서는 항상 일찍 일어나서 옷 입고 밥 먹으러 (식당으로) 내려가고... 계속 서둘러야 해요.” (70세 여성, Locust Lane)

(2) 개인화

거의 모든 노인보호주택 거주자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보낸다. 그러므로 특히 개인실은 각자의 좋은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개인화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개인적인 소장품으로 꾸며진 환경에 산다는 것은 그 환경에의 소속감을 증진시키며 아울러 상실감과 외로움을 경감시킬 수도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18명)은 개인실의 개인화 정도에 대하여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다:

“내 물건을 갖고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여기를 때) 내 가구를 들고 왔어요. 이것이 내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죠.” (77세 여성, Locust Lane)

“모든 물건이 나에게 의미가 있죠. (이것들은) 내가 오랫동안 쓰던 것이기 때문에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88세 여성, Pine Ridge)

(3) 안전과 안정성

새로운 환경의 물리적 특성은 거주지 이동에 따른 개인적 적응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 실증적 연구들이 (Butterfield & Weidemann, 1987; Carp, 1978; Cohen & Weisman, 1991) 노인의 물리적, 사회적 욕구에 적합하게끔 세심하게 디자인된 주거는 새로운 집으로 이동함에 따른 스트레스적인 측면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의 많은 응답자들 역시 현 거주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안락하고 지원적 물리적 환경이 ‘집’처럼 느끼게 한다고 응답하였다. 총 25명의 응답자 중 반 이상인 16명이 현 거주지가 자신에게 안전함과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집에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이들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안전함이에요. 내 모든 요구는 완전히 충족되고 있어요. 나는 경찰서, 소방서, 응급구조대도 가까이 있죠. 나에게 이곳은 아주 이상적인 곳이에요.” (88세 여성, Ash Meadow)

“집은 안전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머물 곳, 나를 가려 줄 지붕과 내가 먹을 음식이 있죠. 더 이상 될 원하겠어요?” (70세 여성, Locust Lane)

“모든 게 다 좋아요. 위치도 좋고, 건물도 좋아요. 사람들도 좋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86세 여성, Pine Ridge)

“굉장히 지원적이지요. 매력적이고 안락하고.” (75세 여성, Pine Ridge)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보호주택 거주자들로 하여금 ‘집’처럼 느끼게 하는 주된 속성은 물리적 환경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으로 나타났다.

계획 차원에서 노인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안전성 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건물구조가 ㄱ 자, 혹은 + 자 등의 형태를 가지며 90도로 꺾이는 곳에는 경비직원이나 간호인력이 3~4 방향을 관찰할 수 있으며 건물의 모든 출구는 중앙 통제센터 혹은 간호국에서 폐쇄회로 카메라로 확인하여 개폐시키는 구조를 가질 것, 둘째, 부지선정이나 건축여건상 부득이 一 자 혹은 ㄱ 자형일 경우 두개 이상의 건물과 외부 차단벽 등이 서로 연결되어 ㄷ, ㄹ 자의 구조를 이루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중앙 현관문으로 노인이나 방문객이 출입하도록 하여 일단 노인이 건물 밖으로 나오면 다른 노인과 자유로이 만날 수 있고 직원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노인들이 개인 침실에서 나오면 다른 노인과 자연스럽게 마주치며 원활한 사고를 가짐과 동시에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관찰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노인들의 일상생활이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중 집기, 건물 등 하드웨어로 비상벨, 안전하게 고안된 부엌, 폐쇄 회로 보안시스템, 4-6명이 모일 수 있는 소규모 사고공간, 24시간 경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서비스와 케어

서비스와 케어의 편리함과 편안함은 노인보호주택의 또다른 '집과 같은' 속성이었다. 노인보호주택 거주자들로 하여금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묻는 질문에 대해 총 13명의 응답자들은 직원과 시설 자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케어를 언급하였다:

“직원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대단하죠. 그들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니다. 그리고 난 거기에 대단히 만족해요.” (88세 여성, Ash Meadow)

“전체적으로 나를 돌보는 방식이 좋아요. 모든 것이 깨끗하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데려다 주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나를 돕죠. 모든 것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82세 여성, Ash Meadow)

“내가 직접 장을 보거나 요리할 필요가 없어요.” (64세 남성, Walnut Hill)

(5) 독립성

독립성이란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각종 행위와 조건에 대해 다양한 선택을 행할 수 있다. 노인보호주택과 같은 공동주거에서도 인간-환경의 적합성이란 견지에서 거주자의 요구가 충족된다면 마치 자신의 '집'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일부 응답자들(10명)은 타인에게 의지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신의 능력 부재, 곧 독립성의 결여가 현 거주지를 '내 집'처럼 느낄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내가 마치 우리에게 갇힌 개나 고양이처럼 느껴져요. 집에서는 언제나 나갔다 들어왔다 했죠. 화초에 물을 주기도 하고, 닭에게 모이를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요. 이제는 이곳 직원들이 데리고 나가야만 밖에 나갈 수가 있어요.”(91세 여성, Maple Terrace)

“더 이상 운전을 못해요. 예전엔 어딜 가고 싶으면 어디라도 가곤 했죠. 지금은 교통편을 미리 마련해서 누군가가 항상 내 주변에 있어야 해요..난 아주 독립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젠 완전히 바

뀌었어요.” (75세 여성, Pine Ridge)

“난 차가 없어요. 더 이상 운전을 못하거든요. 보호자 없이는 어디에도 갈 수가 없어요.” (88세 여성, Pine Ridge)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더 이상의 다른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이곳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에게조차 의존적이기를 거부하였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딸네 집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어린 두 손자들한테까지 부담이 되거든요.” (73세 여성, Locust Lane)

“(이곳이) 우리 집을 팔고 내가 가진 유일한 집이에요.” (94세 여성, Ash Meadow)

(6) 사회적 관계/친구관계

사회적인 관계는 자기 집을 떠나 공동주거환경으로 이주한 노인들로 하여금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중화시키는 개인적인 자원이다. 친구관계는 연령, 성별, 인종, 사회계층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있어서의 공통적 관심사와 유사성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게 된다. 대개 이러한 사회적 동질성은 거주지의 이동에 대한 거주자의 개인적 적응과정을 보다 쉽게 만들어주며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George, 1980).

본 연구조사 결과,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같은 사회적 연결망에서 얻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 역시 일부 거주자들(8명)에게는 현 거주지를 내 집처럼 느끼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이곳이 내 집이죠. 친구들이 여기 있잖아요. 내가 나고 자란 곳에 친구와 이웃이 있듯이 여기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70세 여성, Walnut Hill)

“여기 사는 사람들(직원들)은 친절해요. 내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 될 때마다 기꺼이 관심을 보여요. 내가 뭔가 필요할 땐 항상 그걸 찾을 수 있어요.” (88세 여성, Pine Ridge).

자신의 집이 아니라 공동생활환경에서 산다는 상황 때문에 노인보호주택 거주자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밀접하고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노인보호주택내 다른 거주자들 및 직원들과의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으면서 통합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Lemke & Moos, 1989).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

한 사회적 접촉을 갖지 못하는 거주자들은 거기에서 기인하는 의로움과 고립감 때문에 현 거주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Ash Meadow의 82세 된 한 여성 거주자는 '집'에 대한 정의를 내림에 있어 친구와 이웃과의 사회적 접촉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이전 집과 비교할 때 현 거주지에는 친구가 많지 않으므로, 실제로 노인보호주택이 자신을 돌보아주는 방식에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는 곧 환경과 거주자의 요구에 대한 부분적 적합만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거주자들이 사회적 접촉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공동공간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주된 이유로 '타인과의 원치 않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난 알고지내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사람들은 모두가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난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대부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죠." (79세 여성, Walnut Hill)

"전혀 (사람들과 교류가 없어요)...여긴 아름다운 곳이지만 전형적인 남부라...이곳 사람들 대부분이 싫어요. 억양도 싫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도 싫고 모든 게 싫어요." (81세 남성, Locust Lane)

"여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죠.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면 서로 알게 되기까지 무척 힘이 들어요." (74세 남성, Pine Ridge)

(7) 가족의 지원

가족은 장기보호시설 거주자들에게 효과적인 케어와 서비스 제공원이 될 수 있다(Lynch, 1998). 본 연구에서 노인보호주택 관리책임자들은 거주자를 위한 '집과 같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족지원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가족원들의 잦은 방문과 의사소통은 거주자들(6명)이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여기 있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까이 있으니깐요..." (82세 여성, Ash Meadow)

"우리 딸이 수시로 와서 보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75세 여성, Maple Terrace)

그러나 또 다른 견지에서 가족과의 별거는 거주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자기 집에서 사는 것과 노인보호주택에 사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

일부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자기 집에서는 자기 가족과 살지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살잖아요." (82세 여성, Ash Meadow)

(8) 규칙과 규제

노인보호주택과 같은 공동생활환경에서는 개인화된 일상적 생활행위를 유지하게 하는 적절한 환경적, 심리적 상황(맥락) 즉 규칙이나 규제도 노인들의 생활의 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주거환경의 관리는 통제성, 독립성, 프라이버시, 표현과 같은 생활의 여러 측면과 관련될 수 있다. 노인보호주택과 같은 공동주거환경에서는 시설 측에서 제시하는 규칙과 규율 등에 기인하여 개인적 가치와 취향,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기준과 표현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조사 결과, 여러가지 갈등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시설의 관리행태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다:

"여기와 같은 곳이라면 어디서라도 당연히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규칙이죠. 여기서 하라고 요구하는 것들은 모두 따르려고 해요." (88세 여성, Pine Ridge)

"여긴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그냥 일반사람들처럼 행동하죠. 여기 사람들 아무도 뭐라 않죠." (73세 여성, Locust Lane)

그러나 일부 응답자들에게 이러한 규제나 규칙들이 내 집처럼 느끼게 하지 못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해진 식사시간이나 금연수칙에 대한 반발이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외출하거나 돌아올 때 일일이 직원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지적하였다. 간혹 거주자들간에 기억력 감퇴로 인해 생기는 분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 노인보호주택에서는 거주자들의 개실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도 거주자들에게는 내 집처럼 느낄 수 없게 하는 속성으로 간주되었다.

연구자가 조사대상자들에게 하루의 일과를 묻는 질문을 하자 일부 거주자들(5명)은 정해진 일과표대로의 생활일정에 대해 강한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다. 다시 말해 정해진 식사시간과 같은 일정은 개별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결국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꾸고 싶은 게 있죠. 현재 아침식사시간은 7:30-9:00, 점심은 11:30-1시, 저녁은 4:30-6시까지인데

이걸 8시, 12시, 5시로 바꾸고 싶어요.” (82세 여성, Ash Meadow)

노인보호주택에 의해 제공되는 활동프로그램 역시 거주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 없이 거의 매일 단조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

“항상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아침 먹으러 가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TV보고 가끔 산책하고...” (79세 여성, Walnut Hill)

VI. 결론 및 제언

본 조사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들에게 현 거주지는 쾌적하고 안락하며 편리한 '집과 같은'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웃과 더욱 빈번하게 교류를 하는 경향이 있다(Adams, 1985). 또한 기존의 사회적 역할과 지역사회 활동으로부터 고립되기 때문에 타인이나 현 거주지에 보다 의존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거주자들 간의 다양한 배경 특성 때문에 거주자들은 더욱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곤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의 거주환경과 이웃들이 타인과 교류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많은 응답자들은 다른 거주자들이 자신에 비해 너무 나이 들고 장애가 심해서 교류하고자 하는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고 하였다. 즉, 노인보호주택 거주자들의 연령과 건강상태라는 측면에서의 동질성이 이들에게 오히려 상당히 지루하고 무자극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노인보호주택 거주자들은 여러 가지 속성을 통해 대부분 현 거주지를 자신의 집처럼 인식하고 있었다. 노인보호주택을 집과 같이 느끼게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속성은 '자율성과 프라이버시'로 모든 응답자가 만족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화' 속성으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신의 방을 개인적 물품으로 장식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 집과 같은 느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안전과 안정감,' '서비스와 케어' 역시 노인보호주택 거주자들이 현 거주지를 자신의 집처럼 느끼고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보호주택 거주자들이 현 거주지를 자신의 집처럼 느끼는 데에는 몇가지 분명한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주거의 물리적 환경과 노인들 자신의 이전 집과의 괴리감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시설주거는 거주자들의 가치, 규범, 생활양식, 습관적인 하루 일과, 육체적, 생리적 능력, 친구, 가족과의 관계, 개인적인 추억 등을 충분히 수용하며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괴리감으로 인한 불만족은 일부 거주자들로 하여금 현 거주지를 진정한 의미의 집과 같이

느끼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속성으로는 '독립성', '사회적 관계/친구관계', '가족지원'의 부재 및 '규칙과 규제' 등이 나타났다.

노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의 소속감을 고양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유럽식 모델과 달리 미국의 노인보호주택은 대개 지역의 다른 이웃과 연령집단과의 분리를 조장하는 식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노인보호주택이 그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공유된 자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식당이나 활동실(activity room) 등은 지역사회 전체에 개방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인들이 노인주거시설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상생활의 보조 및 의료관리를 적절하게 해결해주는 이상적인 장소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는 주거생활 유지의 편리성, 동료노인과의 사교,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이인수, 2000). 본 연구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많은 미국의 사례이므로 우리나라에 그대로 결과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노인들이 집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 의식은 세계 공통일 것이라고 본다. 이에 집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나 집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속성 등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우리 실정에 맞는 노인시설주거를 계획함에 있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비록 본 연구결과 거주자들은 공동공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러한 공간이 노인보호주택과 같은 공동생활공간내 거주자들에게 질 높은 대인관계를 고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거주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개방성이나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각기 다른 수준의 공용공간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거주자들이 현 거주지를 내 집처럼 느끼지 못하는데 기여하는 원인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친구관계'나 '가족지원'의 부재와 같은 사회적 유대감의 결여였다. 다양한 출신배경, 생활양식, 인생경험 등으로 인해 노인보호시설과 같은 공동생활환경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은 자신의 추억과 경험, 감정 등을 다른 거주자와 공유하지 못하며 이로 인한 주거불만족은 결국 삶의 질적인 저하와도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시설공급주체측에서는 거주자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견지에서 가족과 친구, 이웃, 직원들을 두루 포함하는 보다 활발한 거주자자치회나 가족자치회 등을 통해 거주자들의 사회적 유대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거주자들의 활동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반드시 모든 사람의 참여를 강요하거나 유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가능하면 동질적인 특성을 갖는 거주자별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연령과 취향 등에 적합한 내용이 세심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와 같이 정해

진 식사시간 등의 규칙은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직원의 편의를 위해 배려된 것이므로 거주자의 다양한 일상생활 패턴을 배려하여 보다 융통성있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거주자들은 자신의 집에 있게 될 경우 물리적으로 힘이 들기 때문에 현 거주지로 이주해온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이주는 물리적인 안락함을 제공하는 대신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리적, 행태적 측면에서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원이 고용되어야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차원 높은 교육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같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해도 상호간에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한다면 세부적인 디자인이나 계획지침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거주자의 주거의식 및 이들을 위한 계획요소를 찾아냄에 있어 그 내용이나 방법이 반드시 같아선 안될 것이다. 즉 그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특성에 걸맞는 내용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 접수일 : 2005년 05월 15일

□ 심사일 : 2005년 05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7월 27일

【참 고 문 헌】

- 이인수(2000). 노년기 주거환경과 실버산업. 도서출판 하우.
- Adams, R. G.(1985). Emotional closeness and physical distance between friends: Implications for elderly women living in age-segregated and age-integrated sett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2, 55-76.
-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1999). *Understanding senior housing: Into the next century*. Washington, DC: AARP.
- Brent, R.(1999). Gerontopia: A place to grow old and die. In B. Schwarz & R. Brent (Eds.), *Aging, autonomy, and architecture: Advances in assisted living*, 63-80.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Butler, A., Oldman, C. & Greve, J.(1983). *Sheltered housing for the elderly: Policy, practice and the consumer*. National Institute. Social Services Library No. 44.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Butterfield, D. & Weidemann, S.(1987). Housing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V. Regnier and J. Pynoos (Eds.), *Housing the aged: Design directives and policy considerations*, 133-152. New York: Elsevier.
- Calkins, M. P. & Weisman, G. D.(1999). Models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In B. Schwarz & R. Brent (Eds.), *Aging, autonomy, and architecture: Advances in assisted living*, 130-140.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Carp, F. M.(1978). Effects of the living environment on activity and use of tim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9, 75-91.
- Cohen, U. & Weisman, J.(1991). *Holding on to Home: Designing Environments for People with Dementi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Frank, J.(1999). I live here, but it's not my home: residents' experiences in assisted living. In B. Schwarz & R. Brent (Eds.), *Aging, autonomy, and architecture: Advances in assisted living*, 166-182.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Golant, S. M.(1999). The promise of assisted living as a shelter and care alternative for frail American elders. In B. Schwarz & R. Brent (Eds.), *Aging, autonomy, and architecture: Advances in assisted living*, 32-59.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George, L. K.(1980). *Role transitions in later life*. Monterey,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Hayward, G.(1975). Home as an environmental and psychological concept. *Landscape*, 20, 2-9.
- Lemke, S. & Moos, R.(1989). Personal and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activity involvement among elderly residents of congregate facilities. *Journal of Gerontology*, 44, 139-148.
- Lynch, S. A.(1998). Who supports whom? How age and gender affect the perceived quality of support from family and friends. *The Gerontologist*, 38, 2, 231-238.
- Neugarten, D. A.(1996). *The meaning of age*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stalan, L. A. & Barnes, J. E.(1999). Personal rituals: Identity, attachment to place, and community solidarity. In B. Schwarz & R. Brent (Eds.), *Aging, autonomy, and architecture: Advances in assisted living*, 81-89.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astalan, L., Jones, V., Schwarz, B., Sekulski, R. & Struble, L.M.(1993). *Homelike attributes of dementia special care units*. National Center for Housing and Living Arrangements for Older Americans.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College of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 Rapoport, A.(1995). A critical look at the concept "home." In D. Benjamin (Ed.), *The home words, interpretations,*

- meanings, and environments*. Aldershot, U.K.: Avebury.
- Reigner, V. A.(1994). *Assisted living housing for the elderly: Design innovations from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Rowles, G. D.(1987). A place to call home. In L.L. Carstensen & B. A. Edelstein (Eds.), *Handbook of clinical gerontology*. New York: Pergamon.
- Schwarz, B.(1999). Assisted living: An evolving place type. In B. Schwarz & R. Brent (Eds.), *Aging, autonomy, and architecture: Advances in assisted living*, 185-206.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US Census Bureau, 2000